

노동부장관, 경북 청도 철도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8. 19.(화) 10:50분경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관할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설치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및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제 (044-202-8950)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044-202-8958)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유병현 (044-202-8966)

